



발표일 : 2018년 7월 31일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 상순의 파고는 남해, 제주도 일부해상에서는 약간 높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에서는 낮았으며, 중순의 파고는 전 해상에서 낮았음. 하순의 파고는 서해 해상에서는 낮았으나 그 밖의 전 해상에서는 약간 높았음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의 평균 풍랑특보 발표일 수는 3.6일로 7월(2.5일)보다 1.1일 증가하였으며, 상순 0.7일에서 중순 0.3일로 감소하다가, 하순에는 2.6일로 발표일 수가 증가하였음
-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간(2013~2017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및 풍랑특보 발표일 수입
- 조석은 서해안 인천은 8월 13일에 97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 완도는 8월 12일에 419cm, 동해안 포항은 8월 12, 13에 4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해양안전

- 최근 5년간(2013~2017년) 8월의 해양선박 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1,119척(10%)이 발생함
- 하계 휴가기간 중 레저선박 및 낚시어선 사고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예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

<8월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충돌, 전복, 침몰...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부릅니다

어업기상

- 8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평년에 비해 1 ~ 3℃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 21 ~ 27℃ · 남해 : 22 ~ 28℃ · 서해 : 24 ~ 30℃

자료협조 :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3~'17년) 8월 순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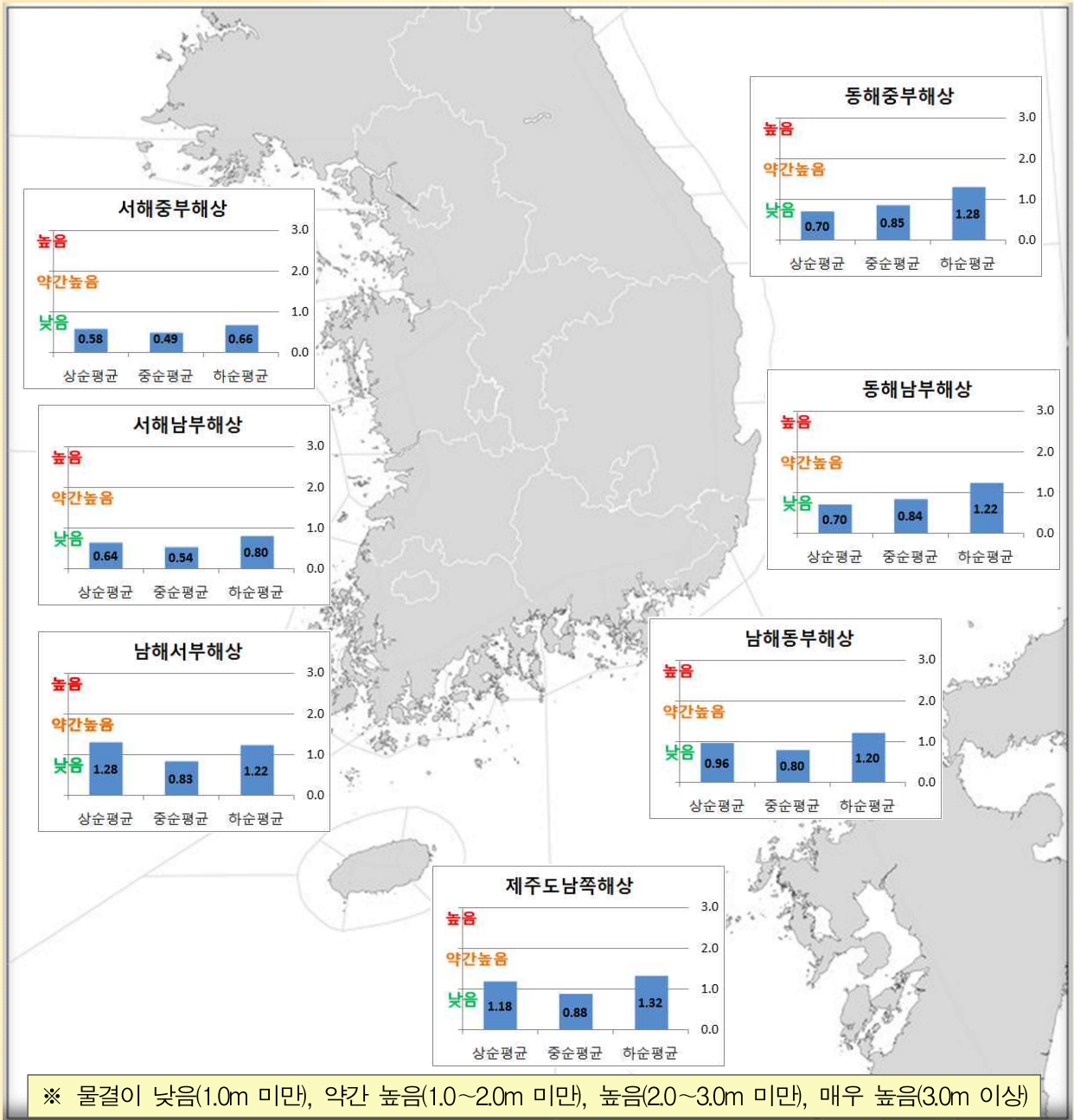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3 ~ 2017년) 8월 해역별 파고 특성

- ▶ 파고정보는 해역별 해양기상부이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을 활용
 -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남해 동부(거제도), 제주도남쪽(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최근 5년간('13~'17년) 8월 지점별 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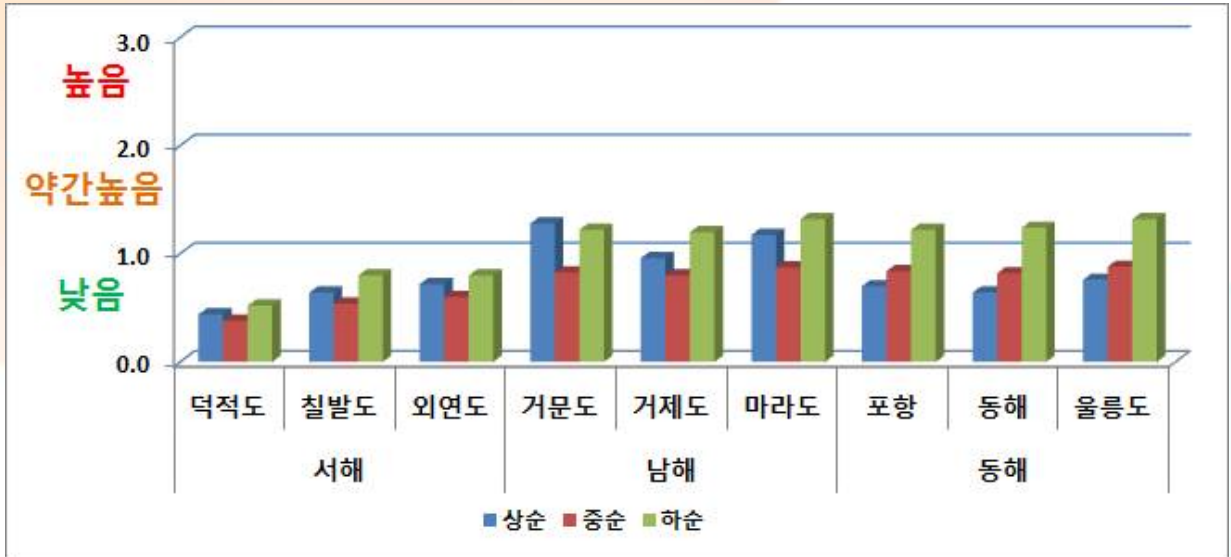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간(2013 ~ 2017년) 8월 순별 파고 관측값

○ 최근 5년간 8월 순별 파고 특성

- 8월 상순의 파고는 남해 일부 해상(거문도)과 제주 일부 해상(마라도)을 제외한 전 해상에서 낮았고, 하순의 파고는 서해 해상(덕적도, 칠발도, 외연도)을 제외한 전 해상(거문도, 거제도, 마라도, 포항, 동해, 울릉도)에서 약간 높았음

해역구분	지점	순별 평균 파고(m)		
		상순	중순	하순
서해	덕적도	0.44	0.38	0.52
	칠발도	0.64	0.54	0.80
	외연도	0.72	0.60	0.80
남해	거문도	1.28	0.83	1.22
	거제도	0.96	0.80	1.20
	마라도	1.18	0.88	1.32
동해	포항	0.70	0.84	1.22
	동해	0.64	0.82	1.24
	울릉도	0.76	0.88	1.32
전체 평균		0.81	0.73	1.07

○ 최근 5년간 8월 파고 최고, 최저 해역

- 최고 해역 : 제주도남쪽해상(마라도) / 1.32m(하순)
- 최저 해역 : 서해중부해상(덕적도) / 0.38m(중순)

▶ 최근 5년간('13~'17년) 및 2017년 8월 풍랑특보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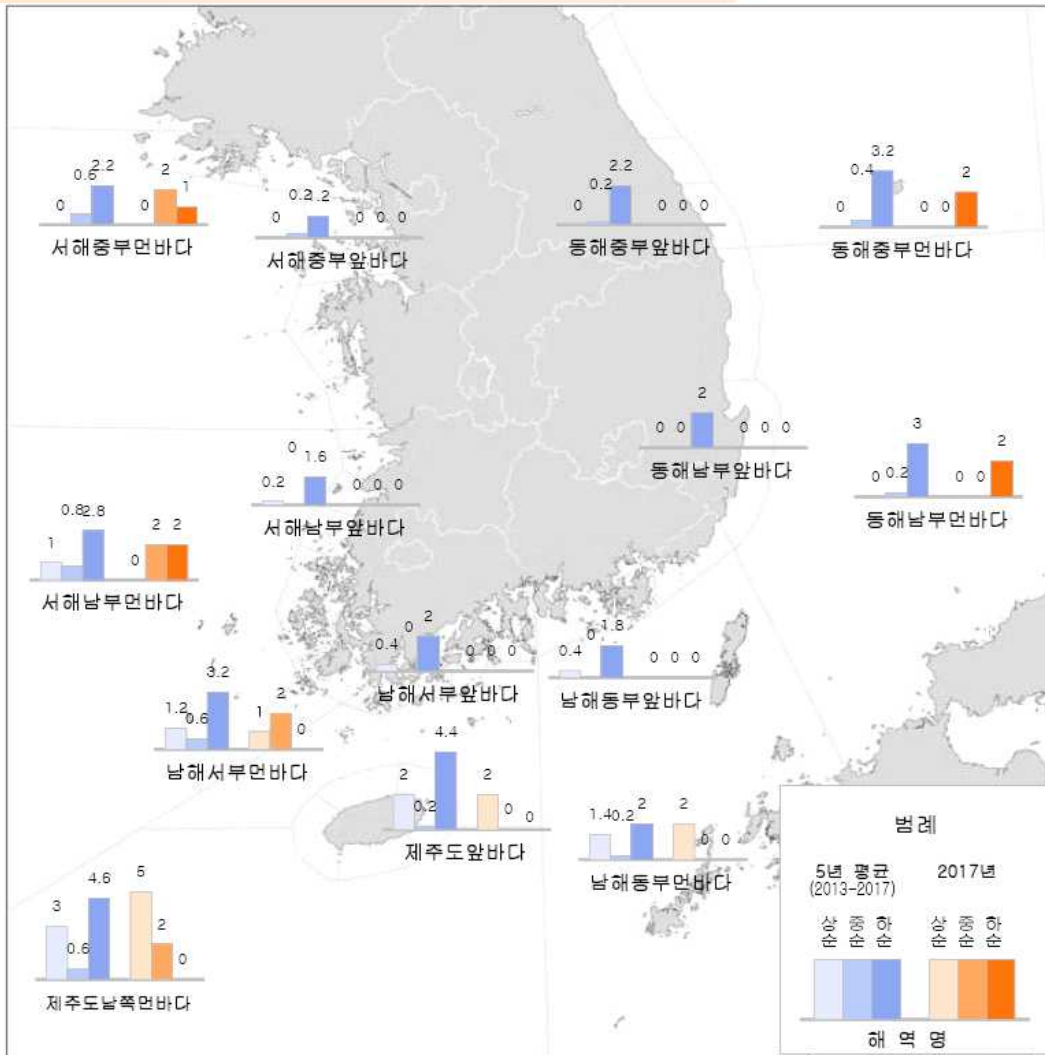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5년간(2013 ~ 2017년) 및 2017년 8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최근 5년간 8월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 3.6일 / 지난 달 보다 1.1일 증가(7월 평균 : 2.5일)
- 8월 순별 풍랑특보 평균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간 평균 : 상순 0.7일 / 중순 0.3일 / 하순 2.6일
 - 지난해(2017년) : 상순 0.7일 / 중순 0.6일 / 하순 0.5일
- 최근 5년간 8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최소 해역
 - 최다 해역 : 제주도남쪽먼바다 / 평균 8.2일
 - 최소 해역 : 서해중부앞바다 / 평균 1.4일

▶ 지난해(2017년) 8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및 파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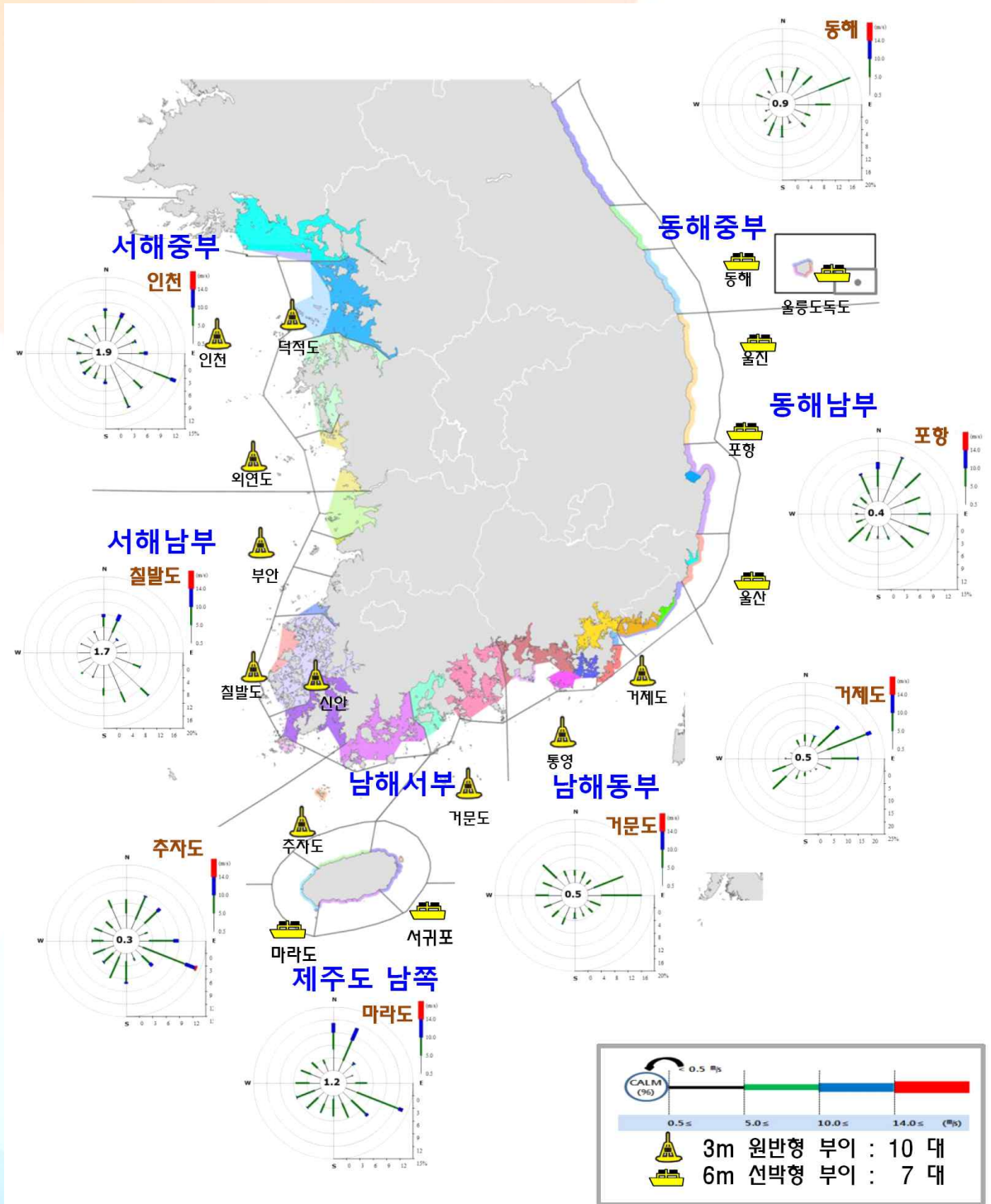


그림 4. 2017년 8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해양기상부이의 전체지점에 대한 해상풍 바람장미는 부록1. 을 참고

■ 지난해(2017년) 8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주풍계	풍속(m/s) 분포(%)					비고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SE	2.9	61.6	28.9	6.6	0.0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SE	3.6	67.6	25.8	3.1	0.0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E	0.4	37.5	58.2	3.7	0.2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NE	0.3	33.0	62.8	3.9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NE	0.7	50.1	48.2	0.9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NE	0.9	50.1	48.2	0.9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	1.6	34.6	59.0	4.8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1.6	48.7	45.7	3.8	0.2	

- 주풍계 : 서해 해상은 남동풍, 남해 해상과 동해 해상은 북동풍이 우세하였고, 제주도남쪽 해상은 뚜렷한 주풍이 나타나지 않았음
- 전 해상 풍속 : 5.0m/s 미만 50.3% / 5.0~9.9m/s 45.7% / 10.0m/s 이상 4.0%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 서해남부해상(71.2%),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10.0m/s 이상 : 서해중부해상(6.6%),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함

■ 지난해(2017년) 8월의 해역별 파고 계급별 분포

해역구분	파고(m) 분포(%)					비고 (관측지점)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중부	78.2	20.3	1.5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87.7	10.4	2.0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41.7	57.6	0.6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44.5	55.0	0.5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51.7	46.8	1.5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52.8	43.4	3.8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남쪽	27.1	69.1	3.7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57.8	40.2	2.0			

- 전 해상 파고 : 1.0m 미만 57.8% / 1.0~2.0m 40.2% / 2.0m 이상 2.0%
 - 서해는 1.0m 미만의 낮은 파고가 83.0% 분포함
 - 동해는 2.0m 이상의 높은 파고가 2.7% 분포함
- 파고 분포 최다 해역
 - 1.0m 미만 : 서해남부해상(87.7%)
 - 2.0m 이상 : 동해남부해상(3.8%)

▶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이안류 정보 제공

- 이안류(離岸流, 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함



그림 5. 이안류 발생 모식도



그림 6. 이안류 예측정보 해수욕장 위치

- 기상청은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8개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이안류 예측정보 제공 해수욕장 (8개)
 부산 해운대, 제주 중문, 양양 낙산, 보령 대천, 완도 신지명사십리,
 강릉 경포, 강문, 안목

- 이안류 예측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바다날씨' > 해상수치예측일기도 > 해양지수정보 > 이안류 예측정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요소	이안류	오늘(03일)				내일(04일)				모레(05일)			
		09	12	15	18	09	12	15	18	09	12	15	18
	위험 경계 주의 안전	High	High	High	High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요소	이안류	오늘(03일)				내일(04일)				모레(05일)			
		09	12	15	18	09	12	15	18	09	12	15	18
	위험 경계 주의 안전	High	High	High	High	Low	Low	Low	Low	Low	Low	Low	Low

http://www.weather.go.kr/mini/marine/marine_index_icing.jsp



▶ 8월 조석예보

서해안의 인천은 8월 13일에 979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8월 12일에 419cm, 동해안의 포항은 8월 12일, 13일에 47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8월 지역별 고극조위

해역	지역	대조기(삭 8.11)		대조기(망 8.26)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 천	04:35	929	04:53	850
	안 흥	03:36	704	04:04	643
	군 산	02:52	725	03:21	664
	목 포	01:57	503	02:24	445
남해안	제 주	23:08	313	23:16	274
	완 도	22:28	418	22:34	361
	마 산	21:13	220	21:15	190
	부 산	20:42	147	20:45	130
동해안	포 항	14:27	46	15:16	38
	속 초	14:17	51	14:45	46
	울릉도	13:40	39	14:20	34

☞ 2018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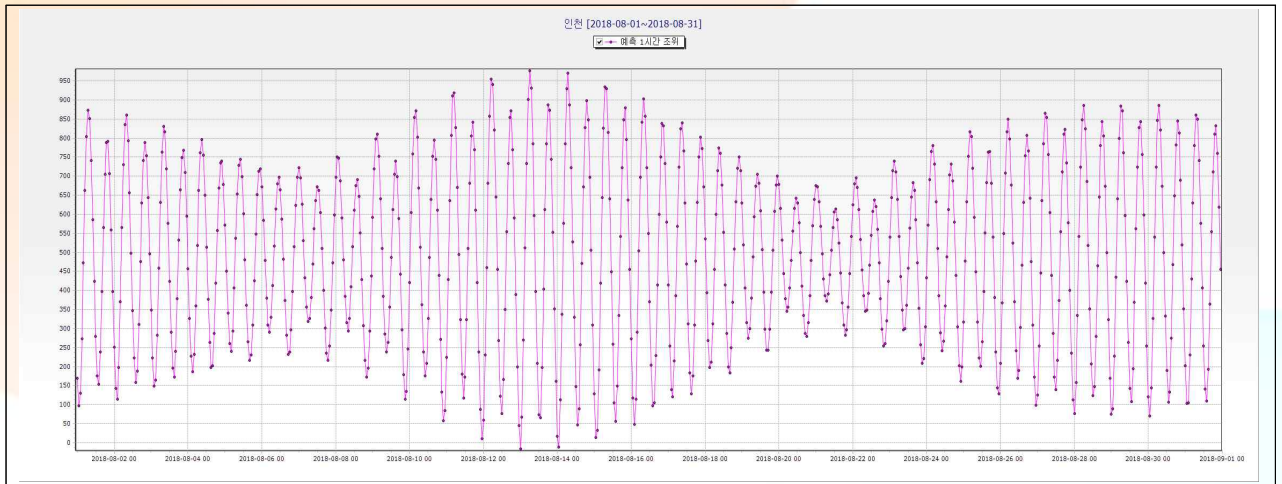


그림 7. 2018년 8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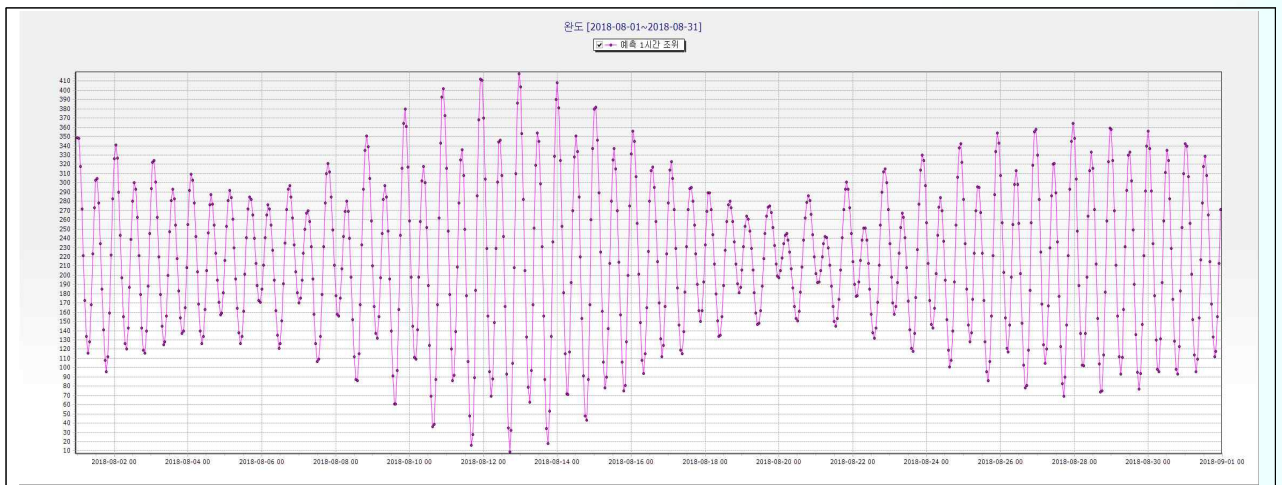


그림 8. 2018년 8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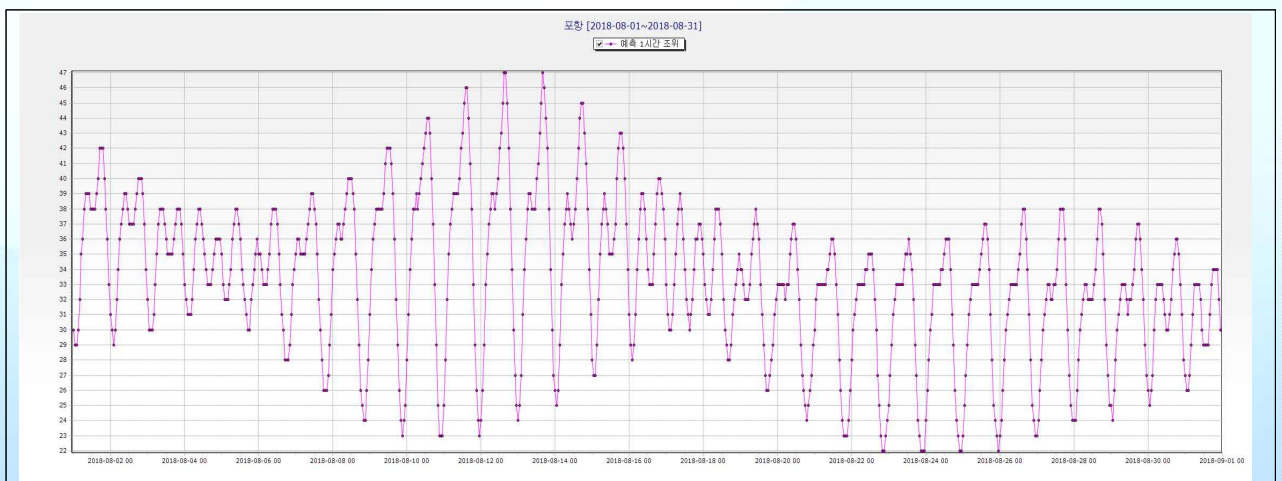


그림 9. 2018년 8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해난사고 현황

제공 : 해양경찰청

▶ 최근 5년간('13~'17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 총 11,209척(75,459명)이 발생하여 선박 10,882척(97.1%) 및 승선원 74,589명(98.8%)이 구조되었고, 선박 328척(2.9%)이 침몰·화재전소로 소실되었으며, 승선원 870명(1.2%)이 사망(652명)·실종(218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척	명	척	명	척	사망	실종
계	11,209	75,419	10,888	74,549	322	652	218
2017년	3,160	17,296	3,108	17,188	52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64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01	77	35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48	19

■ 월별 선박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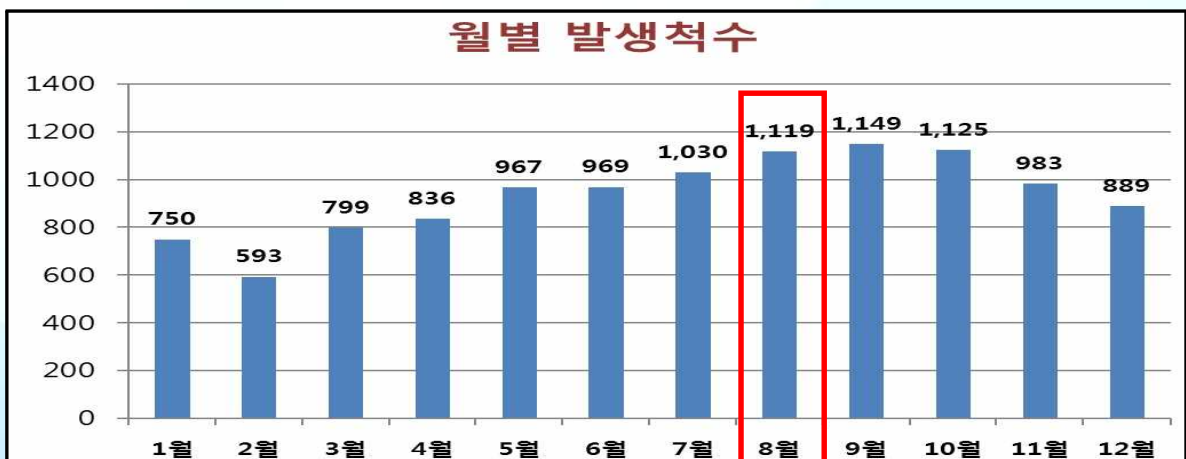


그림 10. 월별 선박사고 건 수(2013~2017년)

☞ 8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8월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 간 8월에 발생한 해양 선박사고는 전체 11,209척 중 1,119척(10%)으로 연 평균 223척의 사고가 발생
- 기간 중 사망·실종자는 44명 발생
- (선종별) 어선 588척, 레저선박 275척, 낚시어선 75척 순으로 발생
- (유형별) 정비불량에 따른 기관·추진기·키손상 사고가 423척(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충돌, 부유물감김, 침수사고 순으로 발생
 - * 충돌 149척(13.4%), 부유물감김 111척(10%), 침수 71척(6.4%)

해양 안전정보

- 특히 8월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해양 레저객 및 낚시어선 승객의 증가로 인한 레저선박 및 낚시어선 사고가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기상예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예방 철저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 「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특보(농무·풍랑 등) 7가지 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 아울러, 선박의 운항자들은 기관 및 항해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선박 정비불량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해양사고 예보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3~'17년) 8월 해양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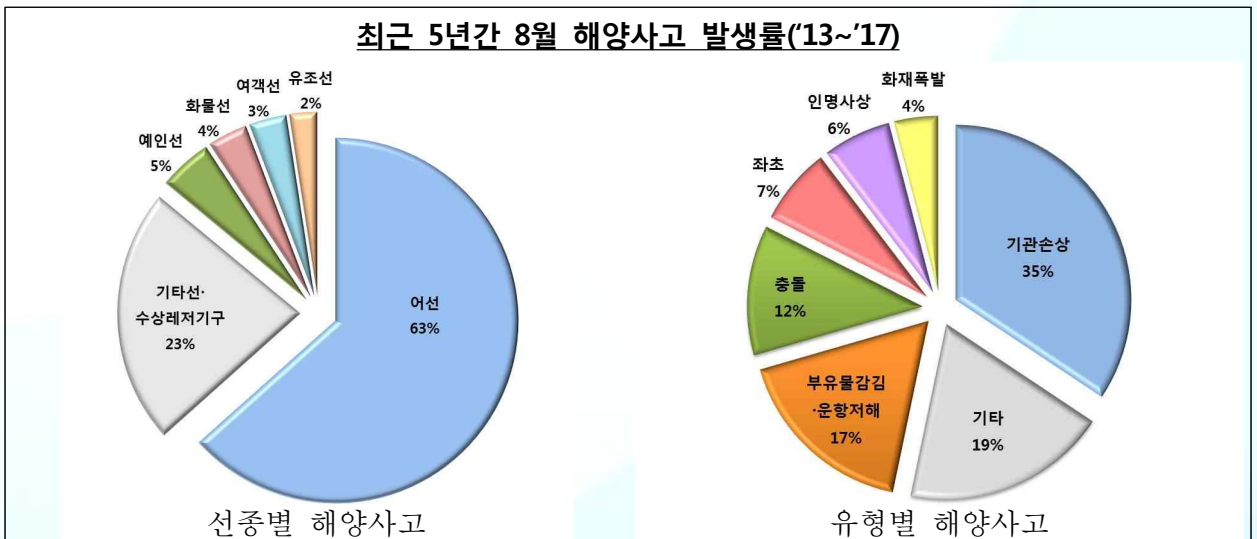
- 8월은 하계휴가철 극성수기로 선박이용객 급증 대비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수칙 준수, 기상 악화시 대응 철저(최근 5년간 월평균 157건, 8월 181건)

○ 최근 5년간 8월 해양사고 : 총 907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650	524	634	657	835	847	829	907	923	942	867	798

○ 최근 5년간('13~'17년) 8월 해양사고

- (선종별) 어선 575건, 기타선·수상레저기구 205건, 예인선 43건, 화물선 32건, 여객선 30건, 유조선 22건 등의 순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289건, 부유물감김·운항저해 145건, 충돌 101건, 좌초 60건, 인명사상 53건, 화재폭발 34건 등의 순



○ 최근 5년간 월별 충돌사고 현황('13~'17, 단위 : 건)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81	50	65	73	76	85	89	101	117	102	11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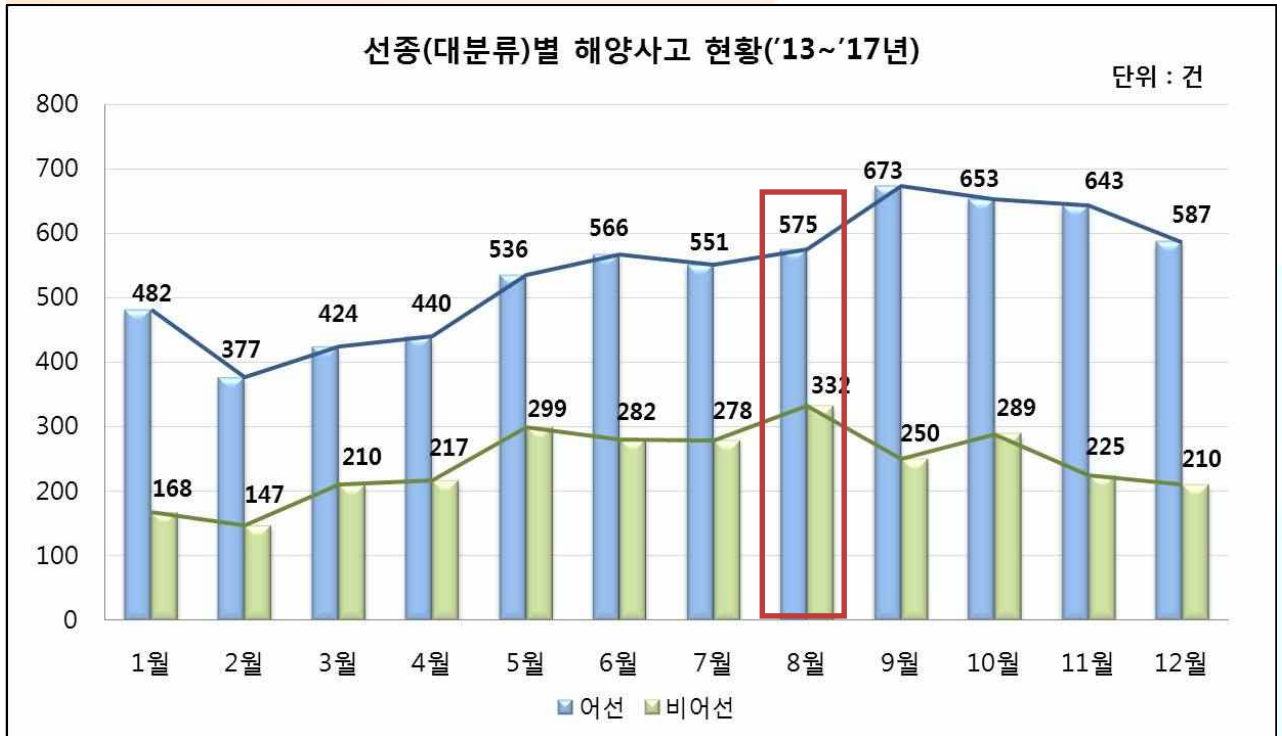
- 8월 충돌사고 (선종별) 어선 63건, 화물선 12건, 예인선 9건 등

8월에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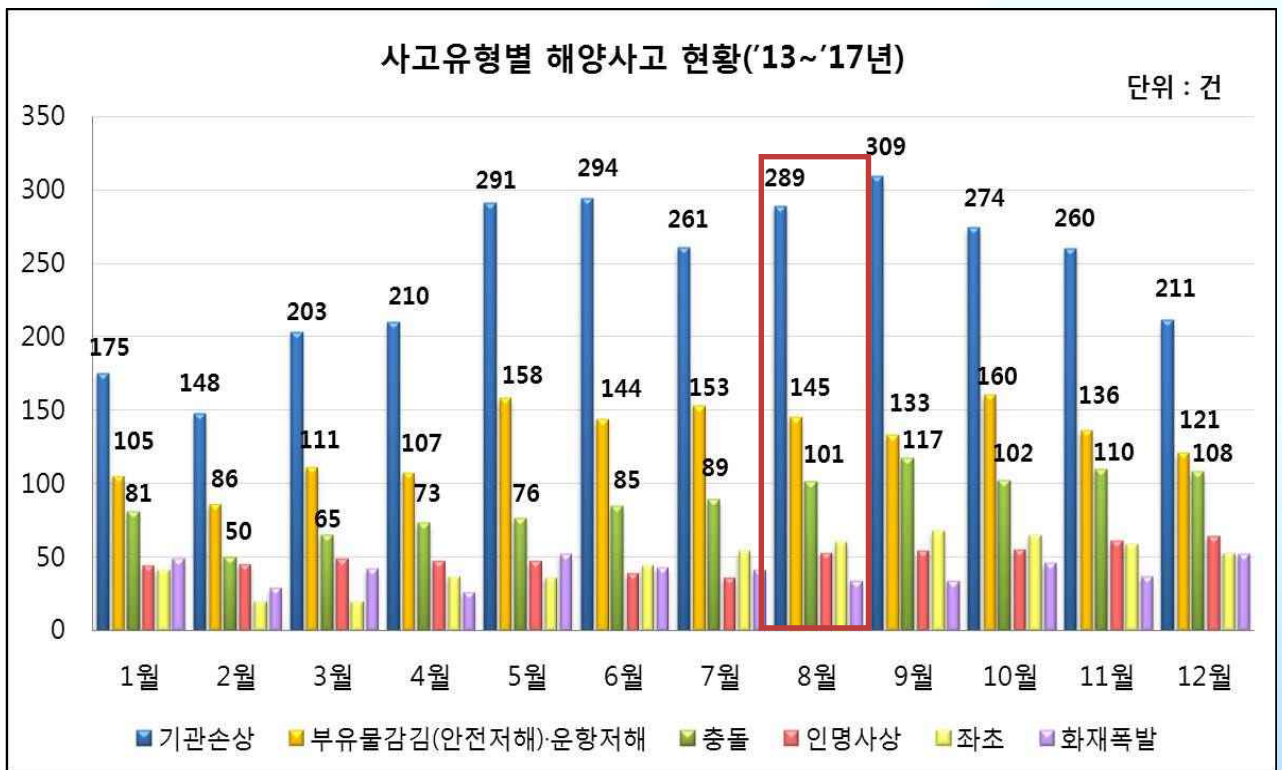
☞ **충돌, 전복, 침몰...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부릅니다**

▶ 최근 5년간('13~'17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8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을 참고

수온 동향

▶ **지난달(7월) 수온 분포**

- 7월의 연안 수온 : 월평균 19.6 ~ 26.3°C 범위로 분포
 - 동해연안 : 20.7 ~ 21.2°C
 - 남해연안 : 19.6 ~ 24.0°C
 - 서해연안 : 21.3 ~ 26.3°C
-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7월 표층 수온
 - 동해 연근해역 : 24 ~ 26°C로 평년에 비해 1 ~ 5°C 높음
 - 남해 연근해역 : 23 ~ 27°C로 평년에 비해 1 ~ 2°C 높음
 - 서해 연근해역 : 20 ~ 26°C로 평년에 비해 1 ~ 2°C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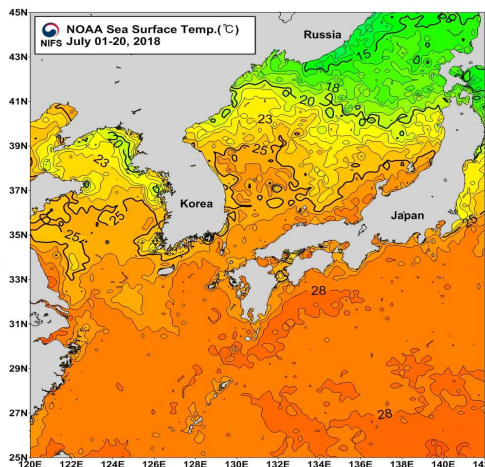


그림 11. 광역 수온 분포(위성)

▶ **8월 연안 수온 전망**

- 8월의 연안 월평균 수온은 평년에 비해 1 ~ 3°C 범위의 높은 수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동해 연안: 21 ~ 27°C 분포
 - 남해 연안: 22 ~ 28°C 분포
 - 서해 연안: 24 ~ 30°C 분포



어장 분포

▶ 8월 어황 정보

■ 지난달(7월) 어황

- 고등어, 갈치, 살오징어는 평년비 순조로움
- 멸치, 전갱이, 참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8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전갱이, 갈치, 살오징어, 줄삼치 등을 대상으로 제주주변해역~서해 중남부해역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권현망어업: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을 이어가겠으나, 최근의 어획량 부진과 여름철 고수온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됨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중남부해역~ 제주 북서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어, 갈치, 참조기, 살오징어, 병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살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서해 중남부 근해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눈볼대, 창끝뚜기, 아귀류, 황돔, 참돔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 인망어업: 눈볼대, 창끝뚜기, 아귀류, 가시발새우를 대상으로 남해 동부 및 동해 남부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강원·경북 연근해를 중심어장으로 청어, 기름가자미, 도루묵, 가자미류, 대구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음
- 저인망어업: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 오징어채낚기어업: 살오징어의 계절적인 복상에 따라 동해 중남부 해역과 서해 중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화퇴어장과 러시아 수역에서도 조업이 이루어지겠음

주요 어종별 어황

고 등 어	계절적인 수온상승에 따라 어군이 북상회유하여, 제주주변(서부/북부)해역과 서해 중·남부 근해에서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남해 동부(대마도 서부)해역에서도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겠음. 전체적으로는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살오징어	계절적인 북상회유에 따라 서해에서 본격적인 여름철 어기가 시작되겠음. 중심어장은 서해 중·남부 근해와 동해 강원 근해에서 형성되겠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활동 또한 활발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멸 치	권현망어업이 남해도와 거제도 주변해역을 중심으로 남해연안으로 가입되는 어군을 대상으로 조업하겠으나, 최근 이어지고 있는 어획부진과 여름철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됨
갈 치	제주주변해역~서해 남부해역에 걸쳐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동중국해 북부해역과 남해 동부해역에서도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겠음. 연중 주야(8-11월)가 시작되어 어획량이 크게 증가하겠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됨
참 조 기	제주도 남서부해역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되겠고, 주업종인 근해유자망이 금어기(4.22-8.10)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겠음.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전 갱 이	제주주변(남부/동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겠고, 남해 동부해역에서도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겠음. 최근 어획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대비 부진 할 것으로 전망됨
그 외	망치고등어는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말귀치는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금어기(5~7월)가 끝나고 조업이 재개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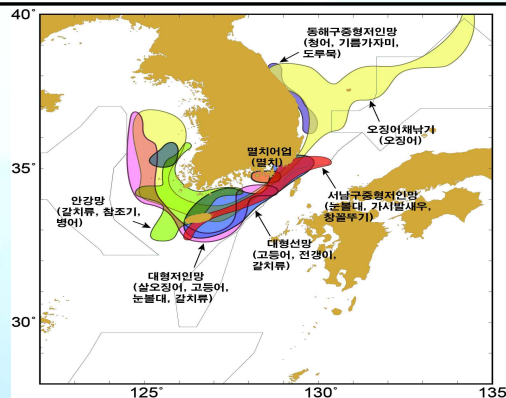


그림 12. 어업별 예상어장도(8월)

■ 냉수대

- 동해 중·남부(영덕~기장)해역에 내려졌던 냉수대 경보(구룡포 하정~정자) 및 주의보(영덕, 포항, 진하, 고리, 기장)가 7월 4일 해제되었음. 7월 16일 이후에는 부산 기장을 중심으로 동해 남부(부산, 울산)해역에 약한 냉수대가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음
- 8월에는 동해 중부 및 남부에서 남풍계열의 바람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냉수대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됨

■ 고수온

- 7월 27일 현재, 7월 24~26일에 경남 통영 학림도 서방 중단~전남 고흥 거금도 서방 중단(득량만 포함), 전남 영광 안마도 북방 횡단~전남 해남 갈도 남방 횡단(영광 안마도~신안 재원도~신안압해도~진도 금호도 서방을 잇는 지선의 외해방향 제외), 제주 차귀도 서방 중단~제주 우도 동방 중단, 완도 내만(해남 남성방파제~완조 당인리방파제~완도 신지대교~완도 신지도 방파제~완도 조약도 당목항~장흥 노력도 북단), 충남 천수만(충남 서산시 창리 남측 횡단~충남 보령시 원산도 남측 횡단)에 대해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
- 8월은 폭염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수온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태풍 통과 및 냉수대 소멸·발생 등에 따라 수온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함

■ 해파리

- 7월에 약한 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가 동·서·남해 전역에 출현하고, 전남, 경남, 경북 일부해역에서 밀집출현 하였음.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울산, 경북 일부 지역에 저밀도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해·서해·남해 전 해역에 출현하고, 전남, 경남, 부산, 경북 일부지역에 고밀도로 출현하고, 충남, 제주, 경남,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일부지역에 저밀도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커튼원양해파리는 동해·남해 경남 통영 매물도 부근에서 저밀도로 출현하였고, 강독성의 야광원양해파리는 동해 경북 울진 근해에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두빛보름달해파리는 강원 동해 한섬 해변에 고밀도로 출현하였고, 울산, 경북, 강원 일부 해역에서 저밀도로 출현하였음. 강독성의 유령해파리는 전남, 경남, 부산 연안에 고밀도로 출현하였고, 전남, 제주, 경남, 부산, 강원 연안 부근에서 저밀도로 출현하였음
- 8월에는 동·서·남해에서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서·남해 근해역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동·서·남해 연안에서 강독성의 해파리들의 출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적조

- 7월 23일 전남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남면 합구미, 돌산 상동에서 코클로디니움 출현하였고, 경남 남해군 서면 장항, 남면 향촌, 선구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 출현하여 적조주의보 발령함. 7월 24일 전남 고흥군 영남면에서 차토넬라와 코클로디니움 혼합 출현함. 전남 여수시 화정면에서 돌산 향일암 해역까지 코클로디니움 적조띠 출현함. 경남 남해군 서면 장항, 남면 사촌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 소규모 적조띠 분포됨. 경남 고성군 삼산면 군령포 지선에 소규모 적조생물이 출현하였으나 인근해역(통영, 사천, 거제)은 적조생물이 발생하지 않았음
- 8월은 대조기로 접어들면서, 남해안의 적조띠는 조석에 따라 주변 해역으로 다소 이동·확산 될 것으로 예상됨. 적조의 호적환경이 조성된 일부 해안해역에서는 적조생물의 집적되어 산발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됨

【부록 1】

8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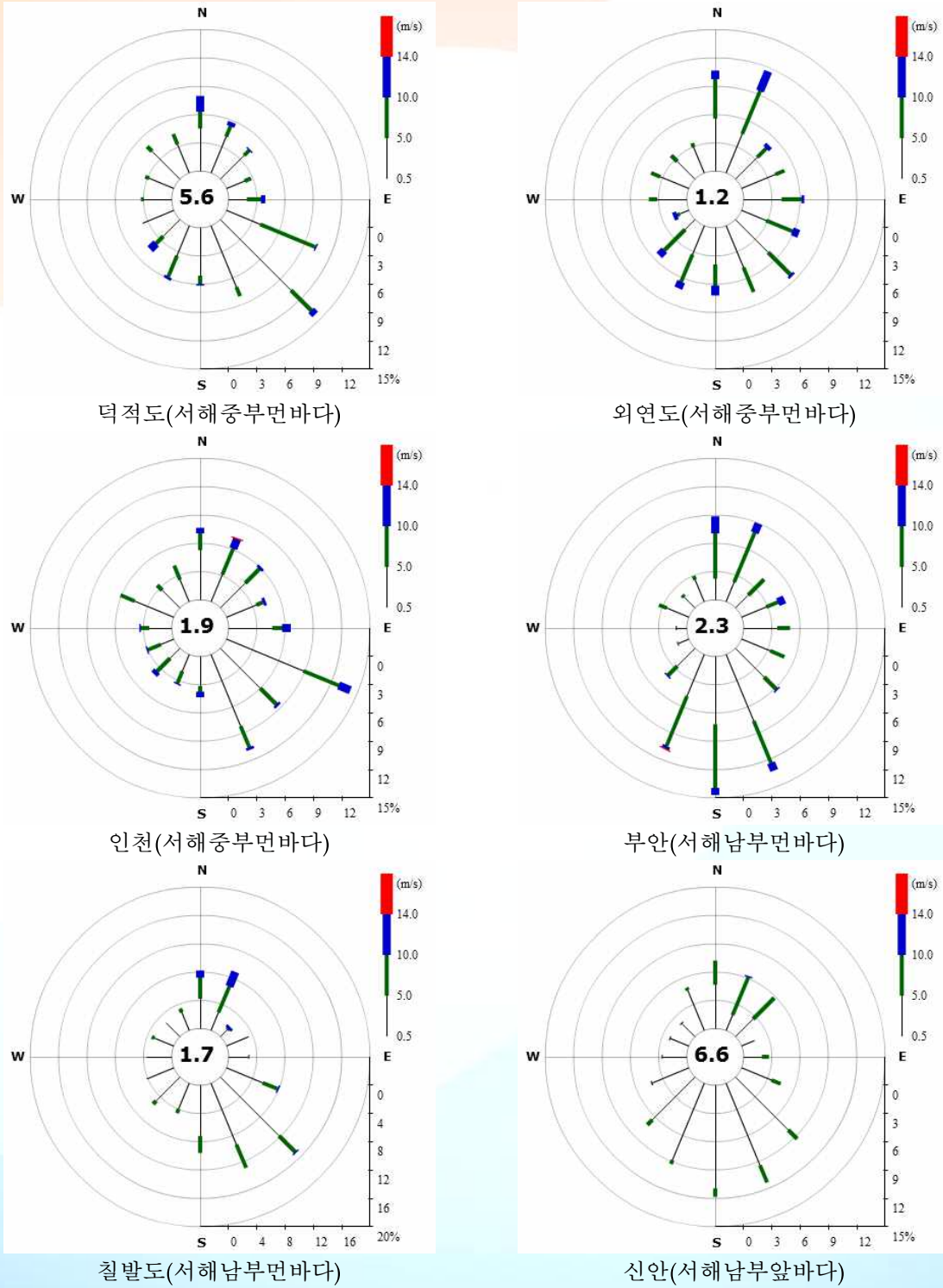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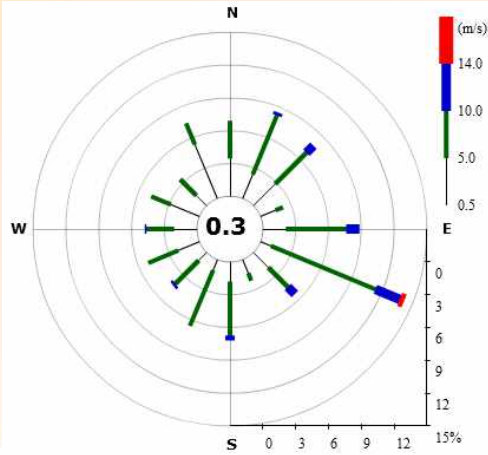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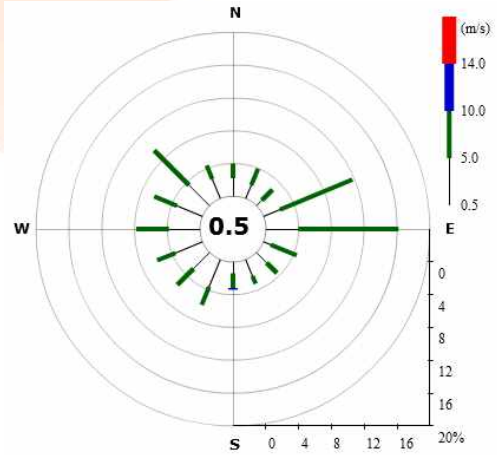


그림 1.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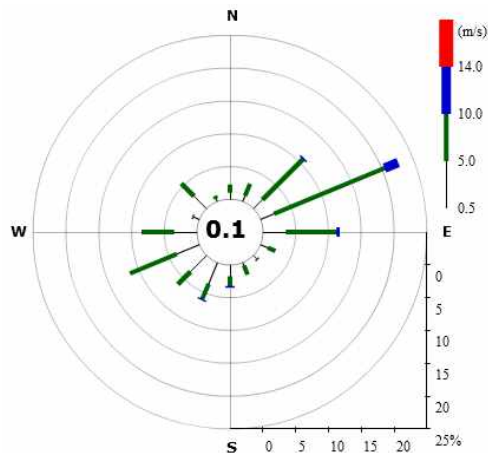
8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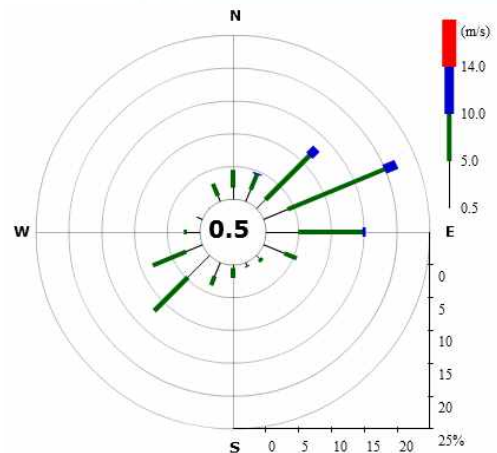
추자도(남해서부서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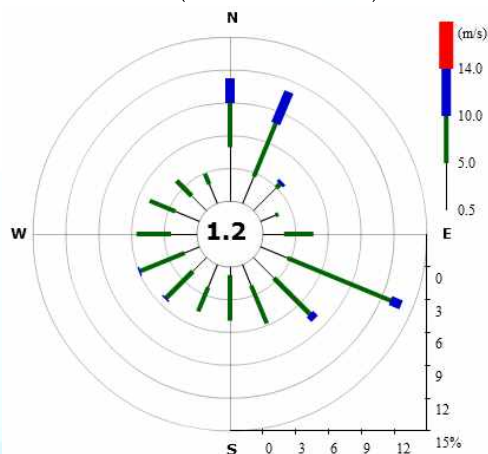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동쪽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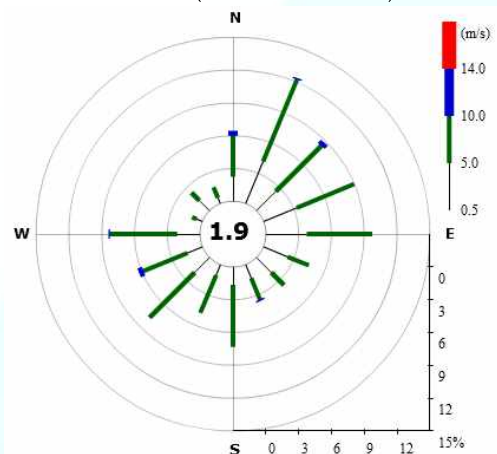
통영(남해동부먼바다)



거제도(남해동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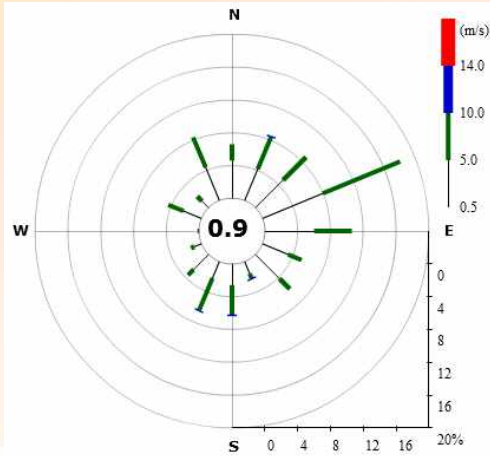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남쪽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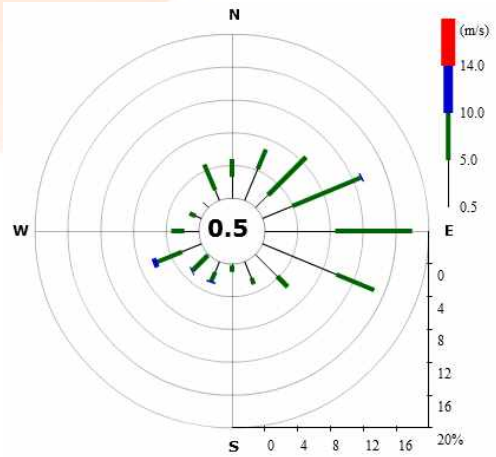
서귀포(제주도남쪽바다)

그림 2.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8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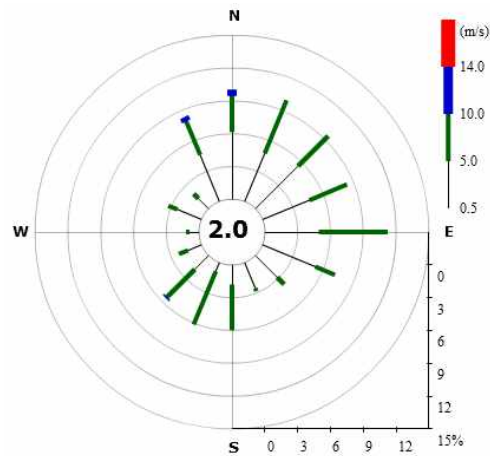
8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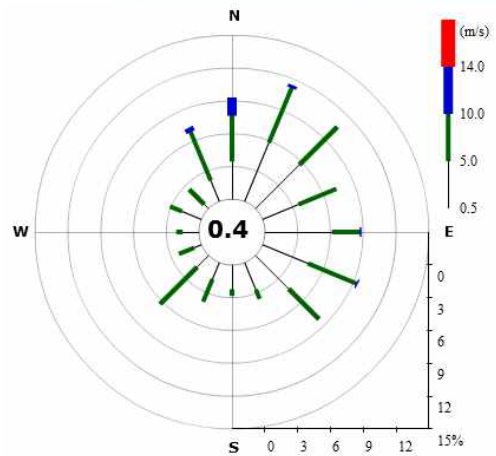
동해(동해중부먼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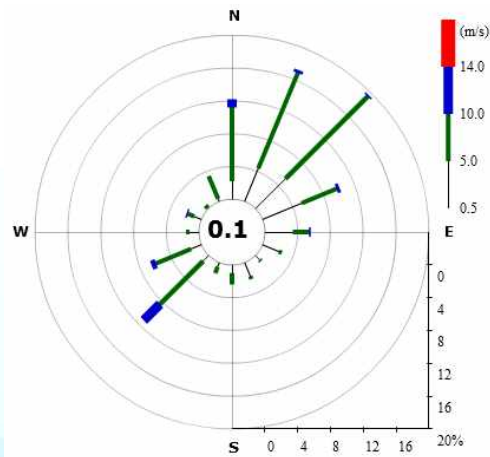
울릉도,독도(동해중부먼바다)



울진(동해남부먼바다)



포항(동해남부먼바다)



울산(동해남부먼바다)

그림 3.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7년 8월, 바람장미)

【부록 2】

8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 해양경찰청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7.8.30. 12:14경	****호 (27톤, 근해통발, 승선원 9명)	4명 사망, 3명 실종	기상불량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항 및 어구 과다 적재로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 * 당시기상 : 남동풍, 8~10㎞/s, 파고 2.5~3m, 맑음
'18.8.31. 04:40경	****호 (7.93톤, 어선, 승선원 3명)	3명 사망	항만 입구에서 출항 하던 어선이 입항 중인 예인선의 전방을 횡단하다 충돌하여 침몰 * 당시기상 : 북동풍, 4~6㎞/s, 파고 0.5m, 맑음



어선 ****호 전복



어선 ****호 충돌.침몰

【부록 3】

8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 해양안전심판원

1. 여객선 A호 · 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명		여객선 A호·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 여객선, 677톤, 디젤기관 1,029kW 2기 B호 : 어선, 4.62톤, 디젤기관 232kW 1기
	일시	2016. 8. 26. 10:36경
	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군내입포로부터 진방위 151도 방향, 1.23마일 해상
	피해	A호 : 없음 B호 : 선박 전복·해체
	상황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차량과 여객을 태우고 항해 중이던 A호와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의 B호가 충돌
날씨	맑은 날씨, 남동풍 초속 10~12m, 파고 1m내외, 시정 약 3마일로 양호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호가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어로작업을 하던 B호를 피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B호가 A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상대선박의 진로로 진입한 것도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행 중인 선박은 어선군 통과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철저 ○ 조업 중인 어선이 이동하면서 조업할 경우 주변경계 철저 	
충돌 상황도		

2. 어선 C호 전복사건

사건명		어선 C호 전복사건
사건 개요	선박	C호 : 어선, 3.41톤, 가솔린기관 220kW 2기
	일시	2014. 8. 22. 19:05경
	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배수갑문 담수측 교각
	피해	C호 : 선박 침몰, 선원 3명 사망
	상황	불법개조하여 어선검사증서가 없는 C호는 조업이 금지된 새만금호에서 전어 조업을 하다가 배수갑문 개방으로 급류에 휩쓸리면서 교각에 충돌 후 전복, 선원 3명 사망
날씨	맑은 날씨, 초속 5~8m, 파고는 약 0.5m, 시정은 약 1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호의 신시배수갑문 부근에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던 C호가 갑문개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리다가 교각에 부딪혀 전복, 공작물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갑문이 열리는 경우 빠른 유속에 선박이 전복될 수 있으므로 근처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 ○ 선장은 조업방법이나 비상대처법 등 선원교육을 철저히 한 뒤 조업에 임해야 함 ○ 배수갑문 시설물관리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급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사고현장 사진자료	